



특허정보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특허정보원(KIPI)

최근 기업활동에서 특허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은 특허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체이자 특허정보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발명가 등에게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KIPRIS: 특허기술정보서비스)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의한 전문화된 특허 선행기술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주요 사업을 통해 기업체들이 특허활동에 KIPR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KIPI)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기술개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KIPRI의 주요 사업은 크게 특허청 특허행정지원과 대민 선행기술조사분석 서비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허청 특허행정지원:

선행기술 조사분석, 국제특허분류(IPC) 부여사업, 특허기술정보서비스, 특허문서전자화,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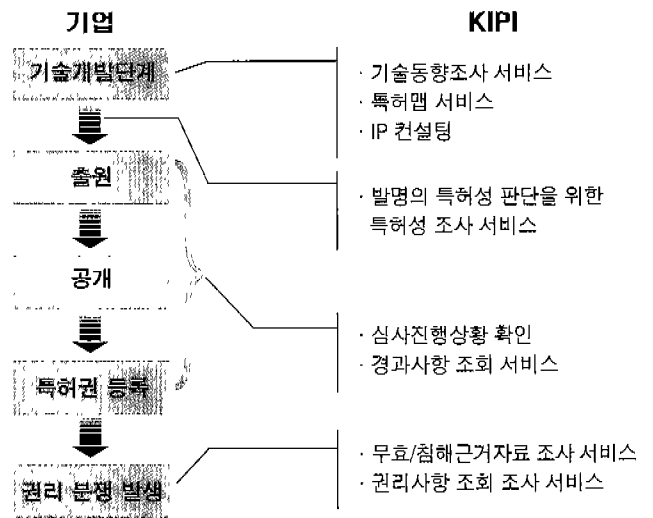
선행기술 조사분석은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실용신안 실체심사(특허성 판단)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기술이란 특허출원하였거나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보다 먼저 출원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일반대중이 볼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인쇄매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선행하는 기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KIPRI는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기술분야별 국제특허분류(IPC)를 부여한다.

또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대한 서지(書誌)정보, 기술(技術)정보 및 행정(行政)/심판(審判)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일반인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청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제공한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원활한 보급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업계, 학계, 개인발명가 등의 특허정보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경감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특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기술개발에서 특허 권리와 단계별 FORX 이용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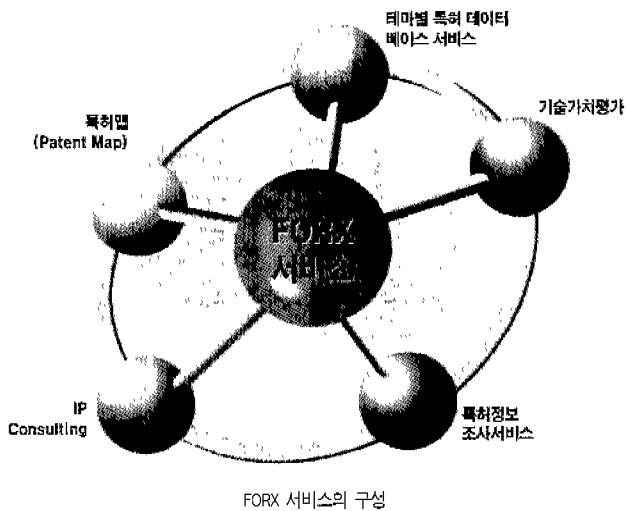
KIPI는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과 관련하여, 특허문서 전자화센터를 운영중이며 서면 출원본(약 15%)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중간서류 전체를 전자화하고 있다. 또 특허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대민 선행기술조사분석 서비스(FORX):

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서비스, 특허정보분석사업, 특허(IP) 컨설팅

KIPI는 전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 방향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서비스를 한다. 2003년의 경우 6,400여건의 선행기술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특허정보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지표로 사용가능하도록 일정 기준별 특허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 발생한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특허정보분석사업도 수행한다. 또한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I의 전문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해 특허(IP) 컨설팅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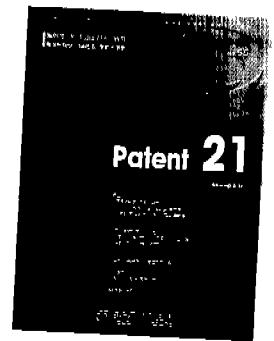


기업의 KIPI 서비스 활용

기업체가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이용해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속(<http://www.kipris.or.kr>)→검색시스템 로그인(최초 방문시 이용자 무료등록)→검색식 입력→결과(서지/행정/기술정보) 열람을 통해 출원 전 선행 특허문헌 검색, 출원 후 본인 출원건에 대한 심사처리 현황(출원경과) 조회, 경쟁사의 특허출원/권리

감시를 할 수 있다.

또 기업체는 KIPI의 선행 기술조사 서비스를 통해 기술 수준을 파악하거나 기술적 지식의 습득 및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수집 및 연구개발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회피함으로써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기술의 권리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연구 또는 라이선싱을 추진한다. 자사와 관계있는 타사의 권리기술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력한 자사 특허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격월간으로 발행중인 특허정보분석 전문잡지 'Patent 21'

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 종류로는 특허성 조사, 기술정보조사, 무효심판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벤처기업확인용 선행기술조사, 기술분야별 정보연속조사(SDI)가 있다. 또한 기업체는 특허정보 관련 전문컨설팅으로 IP 컨설팅과 특허정보에 포함된 항목(출원인명, 국제특허분류기호, 발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분류→분석→가공하여 이를 도표·도식화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추이, 미래 기술흐름의 예측 등이 가능함으로써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맵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㉞